

89 시멘트 決算書

崔 柄 烈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部 代理〉

연 3년째 2자리수 經濟成長을 구가해온 國內經濟는 安定基調維持라는 大前提下에서 연초에 經濟成長率 8.0%, 經常收支黑字 95억불, 輸出 700억불 목표로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88년부터 격화된 勞使紛糾로 인한 賃金上昇과 圓화切上, 國際原資材價格 등기 등 이른바 3高로 인해 價格競爭力弱화가 심화된 가운데 美國, EC 등 선진국들의 對外市場開放 壓力이 가중되어 輸出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美國의 무차별적인 市場開放壓力과 圓화의 對美貨評價切上壓力으로 급속한 切上을 거듭함에 따라 기업의 輸出與件이 나날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바 그중에서도 中小輸出企業이 採算性 악화로 고통이 극심하였으며 여기서 파급된 景氣不振은 기업의 設備投資기피와 실업을 가중시켜서 더욱 景氣不振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결국 當初의 經濟運用 목표는 몇차례 下向調整된 가운데 現時點에서는 올 下半年 經濟綜合對策에서 제시한 年平均 經濟成長率 7.5%, 經常收支黑字 80억불, 輸出 680억불 등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각각 7%, 46억불, 620억불선에 그치고 말 것 같다는 關係機關의 발표가 있고 이런 가운데 물가불안이 지속되어 低成長속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經濟環境의 악화에는 흑자관리대책이라는 명분하의 성급한 輸入擴大政策과 이에 편

승한 일부 가진자들의 過消費行態도 한몫 거들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어 生産部門 대신 慰樂産業과 不動産投機에 집중되는 불건전한 樣相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國家産業의 중추여야 할 製造業 投資는 위축된 가운데 建設投資가 急増하여 建設投資가 固定投資를 주도하는 기형적인 成長을 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이룩한 年平均 12%의 高度成長體制에서 安定成長局面으로 접어들기 위한 일시적인 調整局面에 불과하다고 계속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던 政府當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對處方案 마련에 부심하여 지난 11월 14일 金利引下와 輸出投資促進, 通貨의 擴大供給을 주요내용으로 한 景氣浮揚 綜合對策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폭이 1%포인트에 불과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換率問題는 제외하고 있는 등 미흡하기 때문에 업계는 추가적인 적극적 경기 부양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멘트 업계는 어떠했는가?

작년도 올림픽·總選 등에 의한 特需가 지나가고 이렇다할 好材가 없는 금년을 맞이하면서 業界는 시멘트 需要展望에 대해 내심 걱정하였다. 가까운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후에 수요가 정체 내지는 둔화되는 선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연초 非需期를 지나자 수요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작년보다는 增加勢가 둔화되긴 했지만 작년도가 特需에 의한 수요가 집

증되었던 特異事項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 需要 절대량의 증가는 팔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다시 88년과 비슷한 需給상황이 지속되었다. 한정된 供給能力下的 需給均衡 유지를 위한 方案을 계속 모색해야 했으며 主要 建築資材인 시멘트의 需給差跌을 우려하는 政府當局은 年中 需給動向을 점검하는 가운데 業界의 需給安定策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業界 나름대로 需給均衡 유지를 위해 전력투구해온 바 國內需給安定을 기하기 위해 國內優先供給이라는 大原則下에서 年中 풀가동상태로 生産을 계속하는 한편 施設補修도 최대한 억제하면서까지 供給物量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던 상황이 거의 금년 내내 계속되었다.

輸出은 既存去來先維持와 향후 市場管理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에 局限하여야 했다.

輸出部門에서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消費者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輸出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輸出不振을 우려한 當局의 수출독려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業界는 어느쪽을 우선할 것인가 일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다. 時期的으로도 市場상황이 好轉되어 國際시멘트市場이 供給不足下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밝히 보이는 시장이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輸出物量의 內需轉換에 주력하였으며 그만큼 內需安定에 기여하는 완충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

現在 業體에 따라서는 상당한 進陟度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業界는 92년까지 대규모의 增設을 추진중에 있다. 매년도의 自然增加를 감안할 때 限界需要가 멀지않아 도래하고 增産分을 全量 內需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고 보면 결국 過剩物量을 輸出로 해결해야 할 실정에 처하게 될 것인바 향후 長期的인 輸出政策을 沮害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內需優先政策의 신축적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다.

需給差跌을 막기위한 業界의 노력은 多方面에서 진행되었다. 消費者에게 適期 供給하기 위해 輸送裝備擴充事業에 주력하는 한편 벌크시멘트 需要增大를 감안, 地域別 流通基地 建設事業도 계속 추진하였다. 특히 流通基地 建設은 현재

의 벌크시멘트 需要增大 추세와 관련하여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지난 1年間 業界內에 있었던 主要事項을 몇가지 回顧해 본다. 먼저 東洋시멘트의 創業主人 李洋球 會長의 他界를 들 수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시멘트産業을 일으켜 현재의 세계 시멘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으며 초창기 洋灰協會長으로서 業界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다. 삼가 그 분의 명복을 빈다.

다음 부곡양회까지 내에 사일로 완공과 함께 비롯되어 오랫동안 지속돼온 港運勞組側과의 勞使紛糾가 올 연초에 완전히 타결된 것도 짚을 수 있다.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좋은 결과로서 平和의 勞使紛糾解決의 좋은 선례로 자부할 만한 일이다.

또 業界의 輸送力擴充을 위해 鐵道當局에 大量 申請한 私有貨車의 新規製作件도 業界의 現實을 적극 전달한 결과 거의 全量 受容되어 향후 輸送力 增強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밖에 시멘트 벌크화 추세에 따라 全國의인 流通基地의 擴充이 필요하나 사일로 설치 부지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國土利用管理法 施行令의 일부를 改正토록 政府에 建議한 결과 원활히 추진되어 불가능했던 耕地 및 山林保全地域內에 시멘트 사일로建設이 가능하도록 되어 業界의 사일로 부지 확보난 解消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점도 기억할 만하다.

유감스러운 일은 7월 하순에 南部地方을 強打한 태풍으로 몇몇 業體가 水害를 입었는데 그중 長城工場의 피해가 막대하여 모두를 안타깝게 했으며 이의 복구에 업계에서 많은 協助를 提供하여 복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었다. 특히 工場稼動中止에 따른 호남지방의 시멘트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다른 業體에서 貨車를 特別配定하는 등 輸送에 總力을 기울인 결과 이 지역의 需給安定과 水害 복구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鐵道廳, 企劃院 등 政府當局의 배려에 힘입은 바도 컸다. 業界의 협조정신을 대외에 과시한 것이며 바람직한 民·官간의 협력 사례로서 들고 싶다. 작년 한 해 동안의 需給狀況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需 給

89년의 시멘트需給은 供給能力的 한계로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다. 작년도의 올림픽·總選 등 特需가 사라진 시점에서 業界는 수요 침체를 우려하는 바도 있었다. 그러나 연초의 비수기를 지나면서 需要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年中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전체적인 設備投資는 對内外與件의 악화로 위축되었지만 實物投資의 熱氣는 뜨거웠으며 이에 따른 建築景氣는 年中活況을 지속하여 建築基礎素材인 시멘트需要를 急増시켰다. 이에 따라 業界는 연중 풀가동하여 需要에 應答하여야 했으며 施設補修까지도 최대한 억제하여 需給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금년도 內需는 前年度보다 6% 정도 증가한 27,750천톤을 시현한 바 前年度의 內需急増을 감안한 相對的 鈍化를 豫想, 연초에 5%의 증가를 展望하였는데 이를 上廻한 好實績을 보였다.

輸出部門에서는 內需 증가에 따른 需給 원활화를 추구하기 위해 既存去來先에 대한 최소한의 輸出履行에 그쳐야 했으며 輸出地域도 日本, 美國 등 몇 개 市場에 局限한 가운데 物量配分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실적을 놓고 볼 때 前年보다 감소한 3,153천톤에 머물렀는데 내수 안정을 위해 國內優先供給原則을 정해놓고 內需의 추이에 따라 輸出履行을 하면서 최대한 內需轉換에 주력했기 때문이며 그만큼 國內需給安定에 기여하는 完충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輸入은 量的으로는 적지만 國內需給安定을 기하려는 業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그 意味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內需와 輸出을 합친 總需要도 內需好調로 前年對比 3.7% 伸張한 30,903천톤을 기록하였는데 一見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前年度의 急伸張에 대한 상대적인 역기복 현상을 고려할 때 적지않은 실적이라 할 수 있다.

內需增加에 따라 生産活動도 年中 활발하여 稼動率은 8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작년보다 1.8%포인트 上廻한 93.6%를 시현했다.

1) 生 産

금년의 크링카 生産은 27,947천톤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시멘트는 30,335천톤으로 前年對比 4.6% 증가하였다.

生産好調에 따라 年平均 稼動率도 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3.6%를 시현하였는데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분기 89.5%, 2/4분기 97.0%, 3/4분기 92.8%, 4/4분기 94.9%로서 非需期인 1/4분기만 90%를 약간 下廻하였을 뿐 前분기가 90%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나타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高麗 114.2%, 漢拏 106.3%, 雙龍 98.2%, 韓一 96.0%, 東洋 95.4%로 이들 5個社는 生産能力을 훨씬 上廻하였거나 거의 풀가동하여 이에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現代, 亞細亞, 星信 3社만이 각각 82.9%, 81.0%, 82.0%로 平均 82% 수준을 보여 위 5개 業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이 실적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全業體가 공히 供給擴大에 전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 內 需

금년도 內需는 27,750천톤으로 88년 대비 5.9%의 伸張率을 나타냈다. 작년도의 伸張率이 15%선을 상회하는 급증세였기 때문에 이의 역작용으로 增加勢가 鈍화된 것일 뿐 대단한 물량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연초의 수요정체를 우려했던 業界의 예상과는 달리 꾸준히 內需增加勢가 年中 계속되었는데 가장 主要한 要因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하에서도 활황을 보인 시멘트 소비의 최대 부문인 建築景氣의 上昇을 들 수 있겠는 바 1~10월까지의 建築許可延面積이 前年度가 52,148천㎡였음에 비해 38.9%나 증가한 72,415천㎡에 달했음을 볼 때 이를 알 수 있다. 用途別로 보면 住居用 37,865천㎡, 商業用 22,291천㎡, 工業用 7,338천㎡, 文教·社會用 3,333천㎡, 其他 1,588천㎡로 각각 45.2% 58.1%, △8.0%, 11.1%, 58.3%의 增加率을 나타내어 시멘트 投入比重이 큰 住居用이 여전히 시멘트 需要를 主導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工業用이 減少한 것은 올해의 設備投資 不振

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올해의 經濟成長은 內需가 主導해 온 가운데 특히 建設部門의 기여가 가장 컸음을 보여주는 經濟發表를 접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新都市 建設事業의 本格推進 등에 의한 需要增大가 기대되는 만큼 需要管理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展望이고 보면 이의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1)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商品의 特性上 전통적으로 需要의 季節性이 뚜렷하였으나 最近 이같은 추세는 점차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建設景氣가 上昇局面에 있을 때에 이런 경향이 심화되는 듯 싶다.

금년의 月別需要動向을 보면 1월, 2월, 12월은 月平均値를 밑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3~11월은 이를 上廻하고 있어 盛·非需期가 확연히 구분은 되고 있으나 과거 10년간의 季節指數를 놓고 볼 때 그 꺾은 차츰 완화되고 있으며 비수기가 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年中 最盛需期인 5, 10월은 月間 2,800천톤을 웃도는 最大實績을 기록하여 日平均 93천톤이나 出荷한 셈이며 장마철인 8월중에도 2,700천톤을 上廻하여 前年比 18.3% 증가한 호실적을 내었다.

需要를 上·下半期로 나누어 보면 上半期는 12,900천톤, 下半期 14,850천톤으로 年間內需物量의 각각 46.5%와 53.5%를 점하고 있어 下半期の 需要偏重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上半期에 연중 最大 非需期인 1, 2월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는 2/4분기 중 8,160천톤을 記錄하여 피크를 보이고 있다.

(2) 需要部門別 및 品種別 出荷實績

內需出荷를 需要部門別로 構成比를 살펴보면 民需 92.4%, 官需 7.6%로 前年度의 民需 89.0%, 官需 11.0%였음을 고려할 때 매년 民需比重이 急増하면서 需要를 主導하는 한편 官需部門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民間主導에 의한 經濟運用基調가 자리잡혀가는 듯하

다.

이를 前年對比로 보면 民需는 10.0% 증가를 나타내어 內需增加率 5.9%를 훨씬 上廻한 25,641천톤을 기록했으나 官需는 26.9%나 감소한 2,109천톤에 그쳐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品種別 出荷實績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어 需要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다. 年度別 벌크화율 추세를 볼 때 85년의 49.1%를 기점으로 86년 53.6%, 87년 55.8%, 88년 58.0%를 나타내고 있고 89년에만도 1~10월까지 벌크比重이 62.2%에 이르러 4.5%, 2.2%, 2.2%, 4.2% 포인트씩 上昇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고객인 래미콘 및 시멘트가 공제품 제조업자 등 벌크시멘트 大量需要業體수가 매년 증가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벌크화율의 向上은 우리나라의 시멘트 소비구조도 日本 등 先進國型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業體와 消費者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로서 輸送效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容易, 流通의 單純化, 荷役費用 및 包裝費用의 節減과 消費者에 대한 서비스強化 등 다방면에서 유리하며 향후 벌크화율을 增加추세는 지속될

89년 시멘트 需給 總括

(單位: 千噸)

		88	89	前年比 (%)
크림카生産		27,416	27,947	101.9
(稼動率)		(91.8)	93.6	
供給	生産	28,995	30,335	104.6
	輸入	76	191	251.3
	計	29,071	30,526	105.0
需要	內需	26,202	27,750	105.9
	民需	23,316	25,641	110.0
	官需	2,886	2,109	73.1
	輸出	3,595	3,153	87.7
計		29,797	30,903	103.7
在庫	크림카	460	450	
	시멘트	531	604	
	計	991	1,054	106.4

註: 89년 12월은 추정치.

것이다.

상대적으로 包裝시멘트 비중은 축소되고 있으나 이의 消費者는 少量需要인 반면 벌크시멘트에 비해 需要者의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하여 적기출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在 庫

年中 生産은 풀가동상태였지만 이를 초과한 需要의 急增으로 장마철인 7월에만 약간 增加했을 뿐 年中 계속 감소하여 11월말 在庫는 752천톤에 머물렀다. 비수기라 볼 수 있는 12월에 들면서부터 需要가 주춤하여 月末在庫는 1,054천톤으로 증가하였는데 내년도의 盛需期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이월재고라 하겠으며 비수기인 1,2월중에 稼動率을 높인다면 내년 上半期中의 需給安定을 기하는데 차질이 없을 만큼의 재고수준에 달할 것 같다.

2. 輸 出

89년 輸出은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하여 出荷基準 3,153천톤에 머물어 前年度의 3,595천톤에 비하여 物量으로 442천톤, 비율로는 12.3%나 감소한 부진한 實績을 보였다. 內需增加에 따라 需給安定을 위해 輸出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金額面에서는 130백만불로서 前年度의 140백만불보다 10백만불 감소하여 前年對比 92.9%로서 7.1%가 하락한 實績을 보였는데 金額面에서의 下落率이 物量面에서 보다 良好한 것은 輸出物量은 감소한 가운데서도 價格條件이 좋은 日本地域 輸出이 더욱 증가한 반면, 其他地域 輸出物量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輸出餘力이 적다보니 採算性이 있는 地域中心으로 輸出이 집중된 것 같다.

금년의 輸出實績을 主要市場別로 살펴보면 日本 2,037천톤, 美國 319천톤, 香港 342천톤, 마카오 238천톤으로 前年對比 각각 110.6%, 67.6%, 115.9%, 70.2%를 記錄하여 日本, 香港을 제외한 나머지 國家는 모두 감소했다. 이들 4個國이 全體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1%이며 日本만의 比重이 64.6%로서 同地域 輸出이 全體輸出을 主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日本엔화 強勢에 의해 상대적인 價格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었던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長期的 안목에서 막대한 投資를 해 日本 곳곳에 사일로를 擴充하고 마케팅에 주력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結實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輸出物量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日本 國內 시멘트製造業體들의 반발이 直·間接적으로 證明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日本地域 輸出增大는 政府가 現在 推進하고 있는 對日逆調 改善政策에도 부합되고 있는데 政府로서도 非關稅障壁 등 輸出隘路要因을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강화하면 日本地域 輸出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불가피하게 시작한 輸入은 물량으로는 소량이지만 國內需給安定에 기여하면서 輸出 契約履行을 통해 國際間的 信義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는데 業界增設工事に 의한 增產物量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生産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지속될 展望인 바 이 輸入에서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보전해주는 세계 등의 지원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現在 國內 시멘트業界는 供給不足狀況을 해결하기 위해 全業體 공히 增設을 推進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供給過剩物量을 輸出로 處理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最近의 內需優先政策에 의해 長期的인 輸出基盤이 와해되는 일이 없도록 伸縮적으로 內需優先政策을 運營하는 高度의 政策的인 調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對外的으로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던 國際시멘트市場의 供給過剩狀態가 점차 해소되고 最近 우리나라처럼 시멘트需要 急增에 따라 供給不足狀況에 처하여 있는 國家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對內的으로 3高로 高충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生産性 向上 및 原價節減 등 經營合理化 努力을 다해가면서 현 상황에 대처해나가면 향후 시멘트輸出은 그 展望이 밝다고 하겠다. ♣